

투데이 칼럼

북한의 핵위협 극대화

북한 사회도 내부적으로 크게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옛 소련의 스탈린, 리비아의 카다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이들은 모두 '잔혹한 독재자'란 점과 함께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바로 발잡을 잘 못 잡는 것이다. 최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잠도 안자고 새벽 5시까지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정보 당국은 불면증을 주먹하기도 했다. 또 최근 원머리가 부쩍 늘어난 모습이기도 하다. 고민이 많아서 그런 건지, 혹시 건강 이상을 느껴야 할지 궁금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외형적 변화와 추정일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를 자칫 봉곤 등 북한 체제 불안의 근거로 삼아선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장기간의 대북제재와 단성적인 경제난, 식량난 속에도 버티고 있는 체제 내구성을 더 주목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등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 핵탄두, '화산 31' 사 진을 전격 공개하며 핵위협을 극대화했다. 북한이 이처럼 핵탄두를 공개한 건 2017년 6차 핵실험 당시 장 구형 핵탄두를 공개한 뒤 6년 만이고, 전술 핵탄두를 외부에 노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이를 보고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길을 찾겠다는



정복규
논설위원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직경 50cm, 길이 1m 정도 크기의 포탄 10여 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이 보도됐다. 전술 핵탄두 화산-31로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 녹색 몸체에 앞부분은 붉은색으로 칠했고, 일련번호를 새겨 실물일 가능성을 내비쳤다. 화산-31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최근 시험 발사한 무인잠수정, 해일과 순항미사일 등 8종의 공격 무기도 함께 공개했다. 전술핵은 1kt 폭탄으로도 반경 10km를 초토화할 수 있는데,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은 15kt 정도였다. 핵무기 관리체계로 추정되는 '해방이되'란 표현도 등장했고, 김 위원장은 핵물질 생산 확대를 지시했다. 이처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에 맞서 한미는 연합 상륙 훈련인 쌍룡훈련을 5년 만에 규모를 키워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항에 들어온 미 해 항공모함 니미츠를 중심으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도 진행된다. 이에 북한은 '무자비하게 징벌하겠다'고 또 엄포를 놔다. 적진 깊숙이 침투한 C-130 수송기에서 해병대원들이 강하한다. 상륙 장갑차들이 연막탄을 터트리며 해안가에 접근하고, 해병대 장병들은 뛰어나와 돌격한다. 유사시 적 해안에 상륙해 요충지를 신속히 점령하기 위한 한미연합 상륙훈련, 쌍룡훈련이 새단상으로 격상돼 5년 만에 열린 것이다. 쌍룡훈련이 끝나면 부산항에 입항 중인 니미츠함을 중심으로 한 미일 연합 해상 훈련이 이어진다. 최근에는 중국도 핵탄두 수량을 급격하게 늘리기 시작했다. 대략 2030년대 중반, 2040년대까지 1,000발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이 급격하게 핵탄두를 늘리게 되면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확장억제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관영매체를 총동원해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을 맹비난했습니다. 각종 미사일 발사에 전술핵탄두 공개까지, 북한의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광장 가로지르는 나사렛 예수 행렬



지난 7일(현지시간) 페테말라 인티쿠아에서 형제회 회원들이 십자가를 짊어진 나사렛 예수의 동상이 실린 수레를 들고 부활절 성금요일 행렬에 참여하고 있다.

'유다 화형식' 구경하러 모인 멕시코 사람들



8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유다 화형식'에 주민들이 모여들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해마다 부활절을 앞둔 성토요일에 전국 도시의 광장에서 악귀를 쫓는 의식으로 '유다 화형식'을 연다.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 신도이지만 해학과 풍자가 결합된 이 행사는 가톨릭교회와 주도하는 부활절 행사와는 관련 없는 민속 행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설

입양 뒷돈 거래 의혹

지금까지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입양 간 어린이들을 추산해 보면 17만 명이 넘는다. 지난 한 해 태어난 아이 수의 70% 수준이다. 일찍이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도 얻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입양기관이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꾸준히 불거졌다. 해당 기관들은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해 왔다. 그러나 정부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대책회의까지 열었다. 생후 3개월이던 1983년, 덴마크로 입양된 탈레네 씨가 최근 확인한 입양 당시 서류를 보여준다. '여자가이를 받게 됐다', '한국 수수료 2만 7천 크로네를 결제하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양부모는 당시 환율 기준으로 3천5백 달러를 보냈다. 입양수 수수료는 각종 행정과 근로자들의 임금, 문서 작업 비용에 쓰인다. 1983년 당시 입양특별법으로 허용된 입양 비용은 실비 개념으로 최대 1,450달러까지만 받을 수 있게 했다. 1974년 덴마크로 입양된 피터 밀러 씨는 양부모가 입양수수료로 총 1만 5,000달러로 훨씬 많은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한다.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관계자는 "아이들은 판매된 겁니다. 한국 아이들은 유괴된거죠. 입양과 관련된 큰 사기"라고 말한다. 해외 입양 과정에 과도한 수수료나 정부 기준보다 많은 입양비를 냈다는 증언은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입양 기관들은 부인했고,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4개 입양기관이 '입양비' 1,450달러 외에 3천에서 4천 달러의 '알선비'를 받는다고 지적한다. 해외 입양기관들이 '알선비', 이른바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공문서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 1980년대 정부 문서는 입양 기관들이 '엄청난 관공비를 낭비하고, 부동산 취득에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읍 어느 마을의 사기 행각

정읍시 어느 마을이 수십억 대 사기 피해로 충격에 휩싸였다. 지금까지 피해자만 15명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친하게 지내던 이웃 가게 주인에게 당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으로 보고 용의자를 뒤쫓고 있다. 정읍의 한 상가에 모여드는 주민들은 모두들 돈을 떼이고 연락이 두절됐다며 발을 동동 구른다. 돈을 때려먹은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은 동네에서 아동용품 가게를 운영하던 40대 주민이다. 친척이 사체업을 한다며 이웃들을 꼬여 높은 이자를 빌미로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는 삼촌이 있는데 '일수를 오랫동안 했었다. 한 5백만 원 정도만 구해봐라. 용돈벌이 하 게끔 이자를 주겠다.'고 했다. 어느 피해자는 "저희 아끼랑 같은 어린이집 동문이었죠. 저희 아끼랑 사장님 아끼랑."이라고 했다. 송씨가 2년 넘게 투자한 돈은 2억 원, 매일 고 수익이 입금돼 의심 없이 돈을 맡겼다. 해당 주민은 이처럼 가게를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과 신뢰를 쌓은 뒤 투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피해자들의 돈을 꼭 갚겠다는 편지 한 장만 남겨 놓고 돌연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문제의 주민이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3월 29일 날 마지막까지 도망가면서도 다음날 아침에 즐 테니가 250만 원만 줘라."고 했다.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만 파악된 피해자는 15명이다. 한 명당 5천만 원부터 최고 7억 원까지 총 투자 금액이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사실 관계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ctv 화면과 차량 번호 등을 토대로 달아난 이 씨를 뒤쫓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